

차이나/테크 이슈

화웨이와 1986년의 기억

미중 패권전쟁 경로: 통상마찰→기술봉쇄→환율→구조적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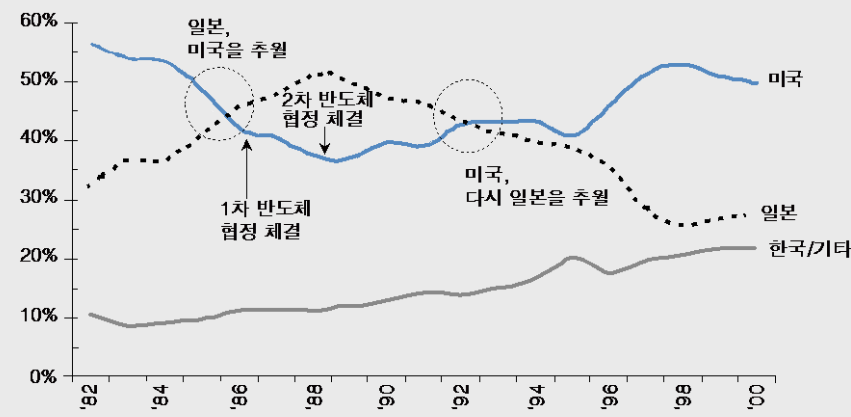
1986년 일본은 미국과 굴욕적인 ‘반도체협정’을 체결했다. 생산원가를 공개하고 일본 내 미국 반도체 기업의 점유율을 20%까지 높이는 것에 합의했다. 그럼에도 일본 반도체가 계속 성장하자 1987년 일본 전자제품에 100% 보복관세를 매겼다. 1992년 일본은 결국 미국에게 반도체 1위를 내주었다.

화웨이는 글로벌 통신설비 분야에서 1위인 중국기업이다. 중국정부 또한 화웨이를 앞세워 차세대 산업에서 글로벌 선두로 나아가고자 한다. 이런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커지는 것은, 80년대 일본과 같이 중국의 굴기를 억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내포되어 있다. 설사 이번엔 통상마찰이 일단락 되더라도 기술봉쇄, 환율 및 구조적 합의까지 아직 갈 길이 멀다. 게다가 중국은 일본과 달리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낮고 내수시장도 훨씬 크다. 중국의 멧집이 일본보다 강해 G2 패권전쟁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도 반사이익, 증장기 수혜는 삼성전자

G2의 패권전쟁은 오히려 5G에서 한국기업에 반사이익이 될 것이다. 1980년대 미일 반도체협정으로 한국 반도체가 성장했던 것과 같다. 작년 중국 통신기업 ZTE에 대한 제재로 글로벌 LTE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점유율이 11%로 4위까지 올라섰다. 미국의 화웨이에 대한 제재가 길어진다면 삼성전자는 5G 통신장비시장(특히 SA)에서 간접적인 수혜가 예상된다.

1982~2000년 미국과 일본의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자료: 한국투자증권

목차

- I. 1986년의 기억: 미일 반도체 협정 1
 - 1. 미일 반도체 협정
 - 2. 오히려 반사이익을 본 한국
- II. 화웨이: 1986년의 재현인가? 4
 - 1. 거세지는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제재
 - 2. 왜 화웨이인가
 - 3. 미중 전쟁 예상 경로
- III. G2 전쟁, 한국에 반사이익의 기회 9
 - 삼성전자 간접적인 수혜 예상

중국시장
최설화
emily.cui@truefriend.com

전기전자/통신장비
조철희
chulhee.cho@truefriend.com

I. 1986년의 기억: 미일 반도체 협정

1. 미일 반도체 협정

1980년대 일본 반도체의 맹추격에 당황한 미국

1984년까지만 해도 세계 반도체 시장은 미국이 선도했으나, 그 시장을 공략한 것은 일본이었다. 미쓰비시전기, 히타치, 도시바 등은 저가 공세를 펼치면서 미국 반도체 기업 점유율을 공략했다. 특히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의 반짝 수요가 끝나자 미국 반도체 시장은 대불황으로 전락했고, 시장 급변으로 미국 반도체 업체가 큰 타격을 받았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I)는 같은 해 대규모 해고를 진행했고, 인텔과 내셔널 세미컨덕터(NS), 모토롤라는 가동시간을 단축했다. 미국에서는 일본이 반도체를 장악하면 세계 패권국이 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왔다.

1985년부터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본격적 제재 시작

미국의 반격이 시작됐다. 1985년 6월 14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무역대표부(USTR)에 일본 반도체 산업 정책의 불공정성을 제소했다. 열흘 뒤인 6월 24일에는 마이크론이 NEC, 히타치, 미쓰비시, 도시바 등을 반덤핑 혐의로 제소했다. 이후에도 일본 업체에 대한 미국 반도체 업체의 제소는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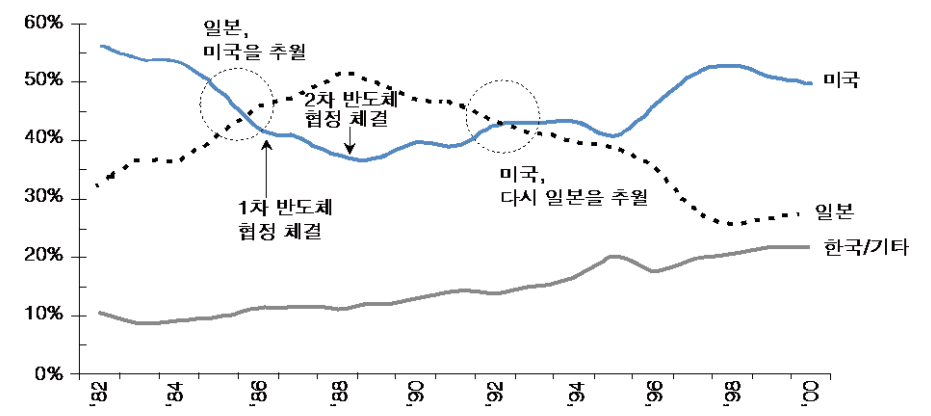
1986년 일본, 굴욕적인 '미일 반도체 협정' 체결

결국 1986년 8월 미국의 계속된 보복관세에 일본은 무릎을 꿇게 된다. 일본 반도체 업체는 미국에 생산 원가를 공개하고 일본 내 미국 반도체 업체의 시장점유율을 20%까지 높이겠다는 굴욕의 '미일 반도체 협정'을 체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이 홍콩 등 동남아 지역으로 수출하며 호황을 누리자 1987년 7월에 미국은 모든 일체품에 100% 보복관세를 매겼다. 많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이를 피하려고 대만으로 이전했는데, 이는 향후 대만이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잡은 배경의 하나였다.

결국 1992년에 미국에게 세계 1위 자리 내줘

당시 세계 1, 2위의 경제 강국인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분쟁은 일본 반도체의 가격을 올리고, 생산설비투자자와 R&D 기회를 막아버렸다. 결국 1992년에 미국은 전세계 1위의 자리를 되찾고, 1996년 공동 발표문이라는 형태로 서로의 체면을 세워주며 봉합됐다.

[그림 1] 1982~2000년 미국과 일본의 전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자료: SIA, 한국투자증권

2. 오히려 반사이익을 본 한국

미일 반도체 전쟁에서
한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의
기회로 반사이익 받음

미국과 일본의 마찰 과정은 오히려 한국 반도체 기업에게 절호의 기회로 작용했다. 실제로 1996년 두번째 미일 반도체 주기가 완료될 즈음 일본 내 외산 반도체 점유율이 30%를 넘을 때 가장 큰 기여를 한 것은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이었던 것으로 조사된다.

한국 반도체 50년, 1980년대에 벌어진 메모리 치킨게임에서 발취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무역 전쟁은 결국 한국에 호재로 다가왔다. 그러나 과정은 힘들었다. 이 시기의 한국 기업, 특히 삼성은 큰 어려움을 겪었다. 64K D램에 이어 256K D램을 개발했다는 성공의 자신감은 시황 악화로 까마득하게 잊혀 갔다. 미국 현지 법인에는 창고가 부족할 정도로 재고가 쌓였다. 기흥 공장에도 겹겹이 제품 박스가 늘어갔다. 직원들은 동요했다. 경영진은 매일 아침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당부를 듣고 하루를 시작했다. 1986년까지 계속된 공급과잉으로 반도체 사업의 누적 적자는 2,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삼성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선행투자를 통해 3 생산라인을 건설 완료했다.

놀랍게 1987년 말부터 반도체 경기가 급반전하기 시작했다. 미국과 일본 간 반도체 통상 마찰로 일본 업계의 반도체 투자가 주춤했다. 인텔 등이 D램 사업에서 손을 뗐다. 공급 공백이 생기면서 결국 한국 기업에 기회가 도래했다. 1988년 한 해 동안 삼성반도체통신은 D램에서만 3,2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그동안의 누적 적자를 모두 제하고도 1,600억원을 이익으로 남긴 셈이다.

1985년 이후 5년간 한국 경기는 11%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지만,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3저호황의 국면은 분명 한국의 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다. 특히 1985년 9월 22일 미국 뉴욕에 있는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이 환율에 관해 체결한 이른바 플라자합의는 저달러 환경을 유지하며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여줬다. 결국 미국과 일본의 마찰은 한국에 반사이익으로 작용했고, 미국의 제재로 일본 반도체 산업 발전이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게 됐다.

작년 중국 통신장비기업
ZTE에 대한 글로벌 제재로
글로벌 LTE시장에서
삼성전자 점유율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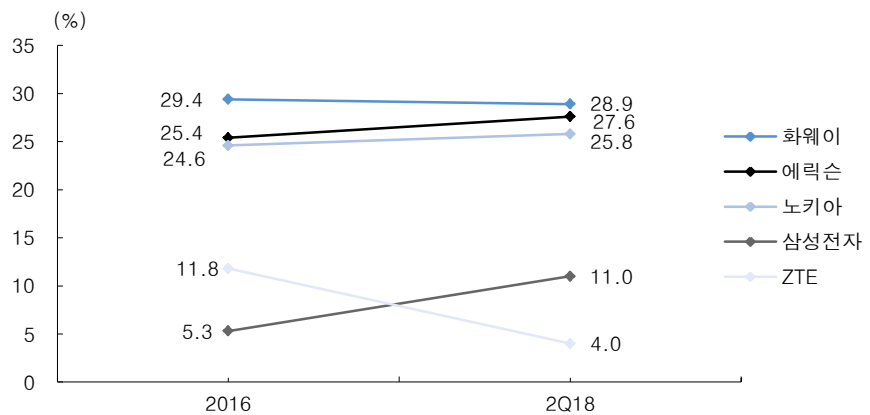
사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미중 무역전쟁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작년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 기업인 ZTE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글로벌 LTE 네트워크 장비시장에서 ZTE의 순위가 하락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삼성전자 점유율은 11.0%로 4위까지 상승하며 반사이익을 얻었다[그림 3]. 향후 미중 패권 전쟁이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수록 중국 외 기타 기업의 반사이익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미일 반도체 분쟁 와중에 성장한 한국 반도체

| Rank 1988 | Rank 1987 | Company | Country of origin | Revenue (million \$ USD) |
|-----------------|-----------|---------------------------|-------------------|--------------------------|
| 1 | 1 | NEC Semiconductors | Japan | 4 543 |
| 2 | 2 | Toshiba Semiconductors | Japan | 4 395 |
| 3 | 3 | Hitachi Semiconductors | Japan | 3 506 |
| 4 | 4 | Motorola Semiconductors | USA | 3 035 |
| 5 | 5 | Texas Instruments | USA | 2 741 |
| 6 | 6 | Fujitsu Semiconductors | Japan | 2 607 |
| 7 | 10 | Intel Corporation | USA | 2 350 |
| 8 | 9 | Mitsubishi Semiconductors | Japan | 2 312 |
| 9 | 11 | Matsushita Semiconductors | Japan | 1 883 |
| 10 | 7 | Philips Semiconductors | Netherlands | 1 738 |
| 11 | 8 | National Semiconductor | USA | 1 650 |
| 12 | 14 | SGS-Thomson | France Italy | 1 087 |
| 13 | 12 | AMD | USA | 1 084 |
| 14 | 13 | Sanyo Semiconductors | Japan | 1 083 |
| 15 | 18 | Sharp Semiconductors | Japan | 1 036 |
| 16 | 19 | Sony Semiconductors | Japan | 950 |
| 17 | 17 | OKI Semiconductors | Japan | 847 |
| 18 | - | Samsung Semiconductors | South Korea | 905 |
| 19 | 15 | AT&T | USA | 859 |
| 20 | 16 | Siemens Semiconductors | Germany | 784 |
| Other Companies | | | | -- --- |
| Total Revenue | | | | -- --- |

주: 이재구 국제과학전문기자의 '이재구코너' 미일 반도체 전쟁 시작에서 발췌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3] 전세계 LTE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변화



자료: 델로로, 한국투자증권

II. 화웨이: 1986년의 재현인가?

1. 거세지는 화웨이에 대한 글로벌 제재

중국 통신장비 1위 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강화, 80년대 일본 기업 제재와 비슷

호주, 뉴질랜드, 일본 등 주변국도 제재에 동참 시작, 기술 교류도 잡음 발생

미국과 중국의 90일 휴전 및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외 국가에서 화웨이에 대한 기술적 봉쇄는 거세지고 있다. 작년 12월 초 화웨이의 부회장이자 CFO인 멩완저우가 캐나다에서 체포된 것에 이어, 올해 1월 미국은 화웨이, ZTE를 비롯한 중국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을 발의 중이다. 17일에는 미국 연방검찰이 '기술 탈취'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형사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22일엔 미국 정부가 캐나다에 멩완저우의 신변 인도를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확인해 무역 협상 기대감을 약화시키기도 했다.

화웨이의 백도어 여부가 확정되지도 않았지만 주변국들도 반(反) 화웨이 행렬에 들어섰다. 호주, 뉴질랜드 등 약 7개 국가에서 이미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 혹은 금지사용 검토 중에 있다. 인도정부도 중국 통신장비 회사를 5G 네트워크 시범 파트너 테스트 기업에서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최소 3~6개월간 화웨이가 제공하는 연구비 및 장학금을 당분간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술연구 및 교류에서도 잡음 기미가 나타나고 있다. 향후 진행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표 1> 화웨이 CFO 멩완저우 사건 경과

| 경과일자 | 주요 내용 |
|---------|------------------------------------------------------------------------------------|
| 12월 1일 | 미국 정부의 요구로 캐나다 밴쿠버에서 체포 |
| 12월 11일 | 캐나다 법원이 멩완저우 CFO 보석 결정 |
| 1월 15일 | 미국, 화웨이 및 ZTE의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법안 발의 (화웨이와 ZTE는 물론 자회사, 계열사가 생산한 통신장비와 서비스 사용금지) |
| 1월 17일 | 미국 연방검찰, '기술탈취' 혐의로 화웨이에 대한 형사조사 진행 |
| 1월 22일 | 미국 법무부, 멩완저우 화웨이 CFO 인도를 청구할 것임을 대외공표 |

자료: 언론 정리, 한국투자증권

<표 2> 화웨이에 대한 기타 국가의 제재 조치

| 구분 | 국가 | 주체 | 내용 | |
|----------|-------|----|------------------------------------------------|----------------------------------------------------------------|
| 反화웨이 동맹국 | 호주 | 정부 | 국가 보안 이유로 중국의 5G 통신장비 사용 금지(2018.08) | |
| | 뉴질랜드 | 정부 | 국가 보안 이유로 화웨이 5G 장비 금지 결정(2018.11) | |
| | 일본 | 기업 | 일본의 통신 3사가 라쿠텐도 5G 설비에 화웨이, ZTE 제품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 | |
| | 영국 | 기업 | 브리티시텔레콤(BT)가 5G를 포함한 모든 통신장비에서 화웨이 사용 금지 | |
| | 프랑스 | 기업 | 오랑주 등 화웨이 5G 통신장비 사용 금지 | |
| | 독일 | 기업 | 도이체텔레콤 사용 금지. 정부도 화웨이 제품 사용 금지하고, 통신법 개정 검토 | |
| | 캐나다 | 정부 | 화웨이 장비의 보안 안정성 조사 중, 사용 금지할 가능성 상승 | |
| | 인도 | 정부 | 화웨이와 ZTE를 인도의 5G 네트워크 시범 파트너 테스트 기업에서 제외 | |
| | 기술 교류 | - | 옥스퍼드대학 | 화웨이가 제공하는 연구비 및 장학금을 당분간 받지 않을 것 최소 3~6개월 뒤에 재개할지 여부는 검토할 것 |

자료: 언론 정리, 한국투자증권

2. 왜 화웨이인가?

화웨이 제재는 5G를 비롯한 네트워크에서 중국의 빠른 성장을 억제하기 위함

5G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 매우 중요한 인프라

이러한 5G 영역에서 장비 부문 28% 점유율로 세계 1위

화웨이 사태 없을 경우 61개의 국가와 통신장비 계약을 체결될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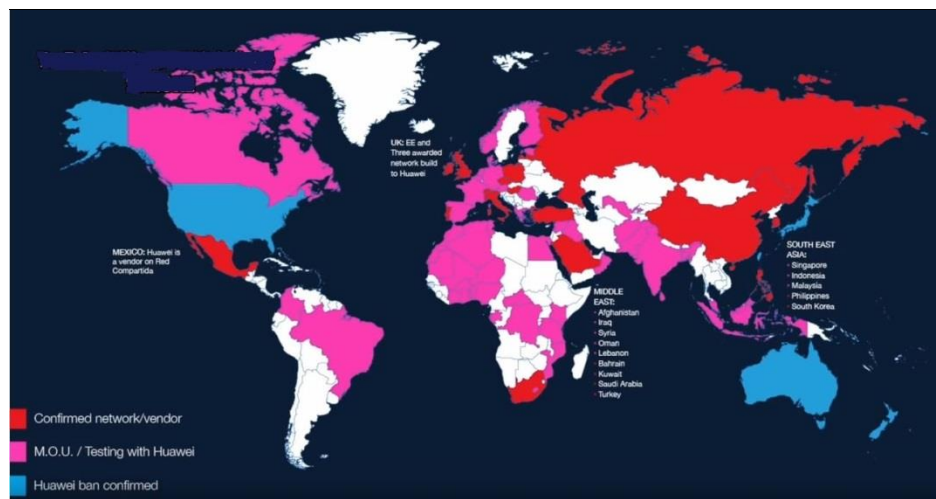
왜 화웨이인가?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이 5G를 비롯한 네트워크 영역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가져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함이고, 중국의 글로벌 5G 전략의 중심에는 화웨이가 있기 때문이다.

5G는 4차산업 시대에서 매우 중요한 인프라다. 5G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성을 지닌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전송속도가 크게 빨라지고 AR(가상현실), VR(증강현실), 자율주행 등 신규 서비스가 제공되면서 인류 생활과 연관된 다양한 영역(의료, 교육, 교통, 농업, 보안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러한 5G 시대에 중국은 통신장비 분야에서 전세계 1등인 화웨이를 내세우고 세계 선두를 향해 질주했다. 화웨이는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비상장회사다. 전세계 140개 국에서 18만명의 직원을 고용하여 세계 인구의 1/3 이상에 해당되는 유저들을 위해 구동되고 있다. 2012년 기준 화웨이의 중국 특허 수는 4만 1,948건, 세계 특허협력조약(PCT) 1만 2,453건, 외국 특허 1만 4,494건으로 특허 라이선스 획득이 3만 240건이며 이 중 90%가 발명 특허다.

화웨이는 연간 매출의 15%를 R&D에 투자하고, 전체 직원의 45%가 R&D 인력일 만큼 기술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서화웨이는 28%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화웨이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3개월까지만 해도 전세계 많은 국가들이 화웨이와 협력 의향을 보였다. 당시 시장에서 서현재의 속도라면 화웨이가 61개의 국가와 통신장비 계약을 체결할 것이며, 중국 기업이 전세계 통신장비 시장을 장악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림 4] 전세계에서 화웨이 통신장비 사용 혹은 협력계약 체결한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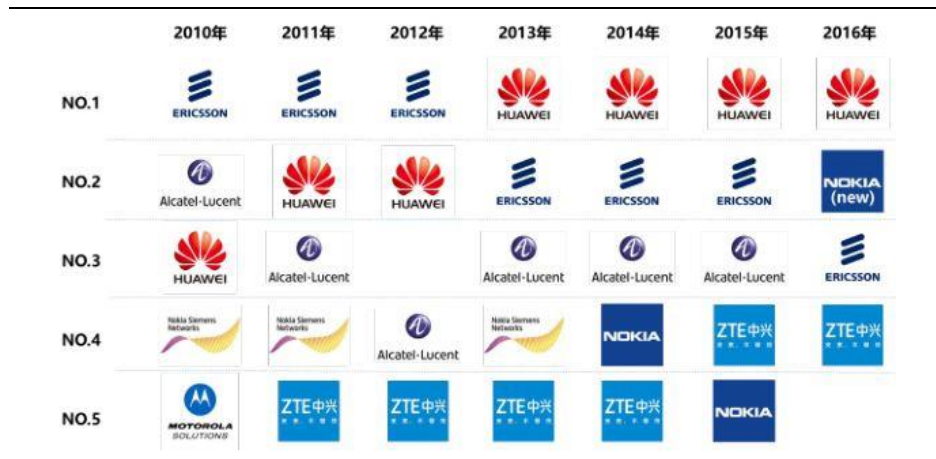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화웨이의 빠른 성장에 관해
미국은 중국정부의 전폭적
지원과 백도어 문제 지적**

화웨이가 이렇게 빠른 성장을 보였던 원인에 대해 해외에서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보조금 지급, 저렴한 대출지원) 때문이며, 이는 공평한 시장 경쟁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화웨이의 통신장비 가격은 해외 기타 업체보다 40% 저렴하지만 기술도 나쁘지 않다. 이러한 높은 가성비로 화웨이는 짧은 시간에 전 세계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왔다. 미국에서는 이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보조금 지급과 갈라놓을 수 없으며, 향후 전세계 중국산 통신장비가 모두 설치하게 되면 차세대 산업에서 중국에게 주도권을 뺏길 수 있음에 두려워하고 있다. 1985년 일본의 저가 반도체 공세에 떨고 있던 미국 당시 상황과 너무 흡사하지 않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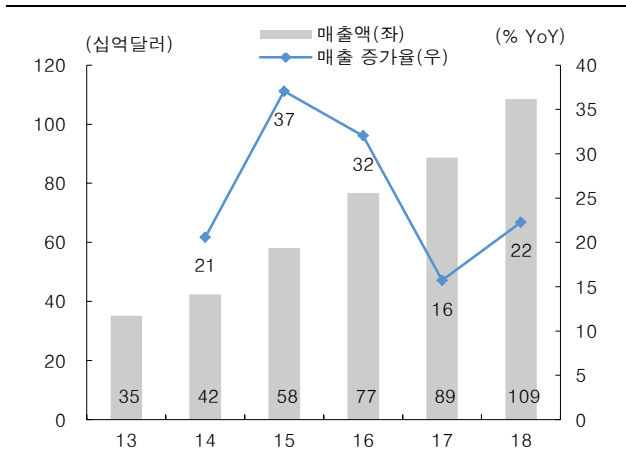
따라서 이번 미국의 화웨이 제재는 단순 중국의 특정기업에 대한 제재라고 보기 어렵다. 화웨이의 빠른 성장은 글로벌 시장에서 5G를 통해 선두위치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전략을 대표하고 있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는 결국 5G 산업에서 중국의 글로벌 전략을 저지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하다.

[그림 5] 통신업체 상위 구도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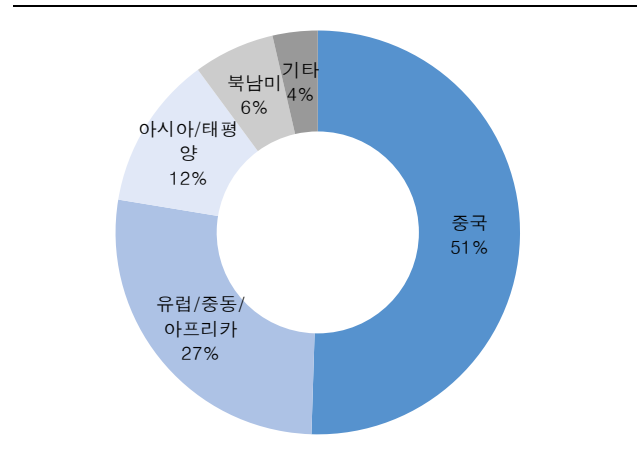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6] 화웨이의 매출과 증가율 추이



자료: 화웨이, 한국투자증권

[그림 7] 화웨이 지역별 매출비중(2017년)



자료: 화웨이, 한국투자증권

3. 미중 전쟁 경로: 통상마찰→기술봉쇄→환율→구조적타협

과거 일본의 경험 감안하면
향후 미중 전쟁도 통상에서
기술봉쇄, 환율, 구조적
합의로 나타날 전망

1980년대 미국과 일본의 전쟁 경로는 통상마찰→ 환율전쟁(플라자합의)→ 기술 봉쇄(미일 반도체협정)→ 구조적타협 4개 과정을 나타냈다. 또한 전체 과정은 최소 20년간의 시간이 경과했다. 당시 미일전쟁도 세계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었고, 미국의 최종 목표는 일본의 빠른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전세계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었다.

2019년부터 최고의 협상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로
전환, 불확실성 증가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전쟁도 같은 맥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미중 패권전쟁의 경로도 통상마찰에서 기술봉쇄, 환율전쟁, 구조적타협으로 확산되어갈 전망이다. 기술봉쇄는 이미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기업에 진행되고 있고, 구조적타협의 의제는 미국 상무부와 재중상공회의소(AMCHAM)가 공동 발간한 리포트에서 집중 보도했다. 작년의 통상마찰에서 올해에는 기술봉쇄와 구조적타협, 나아가서 환율까지 집중 논의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미국의 협상 대표로 최고의 협상가로 불리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로 바뀌면서 협상은 더욱 본격화될 것이다. 그는 1981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아래에서 미국 무역대표부의 차석대사를 지내며 수십 개의 무역협상을 맡았다. 특히 일본의 전쟁에서 철강과 반도체, 자동차, 오토바이에 슈퍼 301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일본 제조업과 일본 행정기관들을 강력하게 견제해 왔던 사람이다. 이런 강경파가 미국의 협상대표로 바뀌었다는 것은 미국의 대중 전략 또한 이론주의에서 실무주의로 전환되었고 중국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됨을 설명한다. 향후 미국은 중국의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어 보조금 중단, 국영기업 지원, 시장 개방 등에 더욱 집중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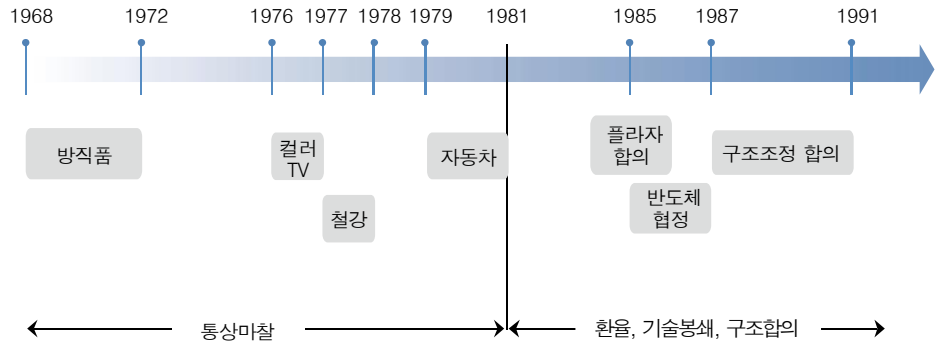
중국은 근본적인 이슈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

그렇다면 중국은 과거 일본처럼 미국에 크게 양보할까? 우리는 쉽지 않다고 본다. 일본이 결국 미국에 처절하게 타협했던 이유는 안보상의 취약점 때문이었으나 중국은 그렇지 않다. 또한 현재 중국의 내수시장 규모가 1985년의 일본의 6배나 더 크고, 국내총생산에서 소비 비중이 39%로 1985년 일본의 54%에 비해 잠재력이 크다. 일본에 비해 미국 압박에 대응할 수 있는 중국의 맷집은 훨씬 강하다. 설사 통상분야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술봉쇄, 환율 및 구조적 이슈에 대한 압박은 지속될 것이다. 기대보다는 불확실성 대비가 더 중요하다.

G2 전쟁은 악재이나,
그동안 중국으로 피해 본
해외기업에 반사이익의 기회

G2 패권전쟁의 장기화는 당분간 글로벌 경기둔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기회도 가져올 것으로 판단한다. 예상되는 새로운 기회로는 1) 중국의 시장개방으로 중국 내 해외기업의 경영환경이 과거의 무작정 배제보다는 양호해질 것이고, 2) 일부 제조업 밸류체인이 해외이전에 따른 새로운 기회가 나타날 것이며, 3) 중국 첨단산업의 성장 속도 둔화로 한국의 5G 등 글로벌시장에서 선두 위치에 놓여있는 산업의 반사이익이 있겠다.

[그림 8] 미일 마찰경과: 통상마찰-환율-반도체마찰-플라자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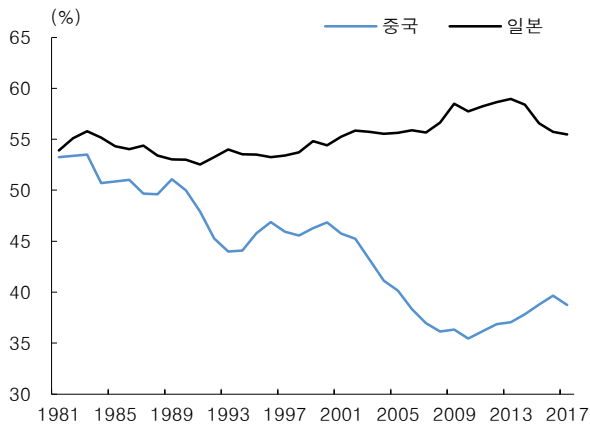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표 3> 미일 전쟁 진행 경과

| 일시 | 품목 | 주요 내용 |
|-----------|---------------|--------------------------------------------------------------------------------------------------------------------------------------------|
| 1968~1972 | 방직품 | - 셔츠 등 일본 방직품의 대미 수출 급증으로 1972년 미일 방직업협정 체결 - 미일 전쟁의 서막으로 인식 |
| 1976~1977 | 컬러TV | - 미국 TV 수입의 90%는 일본산 TV - 1977년 미일 무역협정을 통해 일본산 TV 수출 억제 |
| 1976~1978 | 철강 | - 일본이 1, 2차 철강수출 자율규제 실시 - 철강의 trigger 가격제도 도입 |
| 1979~1981 | 자동차 | - 1981년 자동차 및 부품 수출자율규제 실시 - 1994년이 되어서야 협정 취소 |
| 1985 | 환율전쟁 | - 플라자 합의(미국의 플라자호텔에서 G5(영국,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국가가 달러약세 관련 합의 체결 |
| 1986~1987 | 기술봉쇄 | - 미일 반도체협정 체결(1986년): 생산원가 공개, 일본내 미국기업 점유율 20% - 반도체 2차협정: 일제제품 100% 관세부과 |
| 1987~1991 | 구조조정합의 (시장개방) | - 10년 동안 공공사업 부문에 430조엔(2.8억달러) 투자 - 특허심사시간을 5년에서 24개월로 단축 - 수입 수속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 총리직속의 수입협의회 창설 - 독점금지법 운용 가이드라인 작성, 대일투자 규제 완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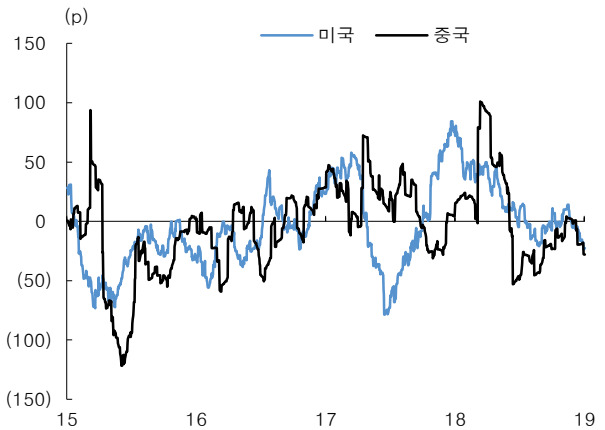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9] 현재 중국의 소비비중 39%, 80년대 일본 53%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10] Citi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 중국, 미국 동반 하락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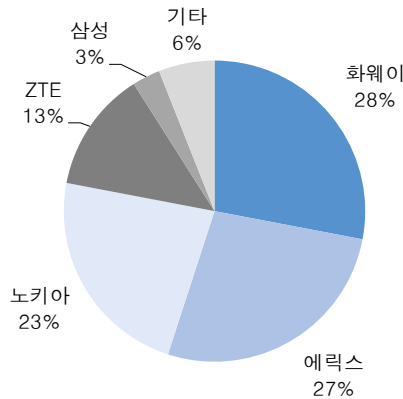
III. G2 갈등, 한국에 반사이익의 기회

삼성전자 간접적인 수혜 예상

화웨이는 통신장비 1위 업체
가격, 기술적 측면에서 우위

화웨이는 통신장비 분야 글로벌 점유율 1위 기업이다. 4G LTE 통신장비가 주류였던 2017년 글로벌 시장에서 화웨이는 점유율 28%를 기록(삼성전자는 3%)했다. 미국이동통신산업협회 CTIA에 따르면 중국은 5G 관련 기술이 가장 앞선 국가이며, 일부 언론은 화웨이의 5G 장비가 글로벌 경쟁업체들 대비 가격은 30% 저렴한데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글로벌 경쟁업체들 대비 3~6개월 앞섰다고 밝혔다.

[그림 11] 2017년 기준 글로벌 통신장비 점유율 - 삼성전자 2020년까지 20% 목표



자료: IHS마킷, 한국투자증권

최근의 분쟁이 단기에
미치는 불이익 크지 않을 것

미중 분쟁이 통신장비분야에서 단기간에 화웨이에 미치는 불이익, 또는 삼성전자가 받는 직접적인 혜택은 크지 않을 것이다. 현재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NSA(Non Stand Alone) 방식으로 5G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 방식에서는 기존 4G에서 사용하던 제작사의 5G 장비를 그대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다. NSA는 기술 특성상 4G 인프라 일부 공유하는 방식인데, 장비간 호환의 문제로 같은 제작사의 통신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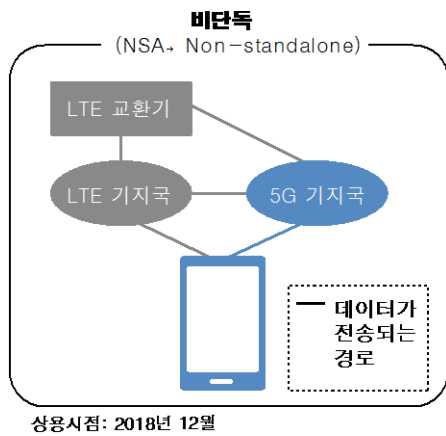
NSA에서는 기존 4G 장비와
동일한 브랜드 5G 장비
도입이 유리

극단적인 예로 중국산 NSA 방식 하에 5G 장비를 쓰지 않으려면 기존 중국산 4G 장비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바꿔야 한다. 실제로 닛케이 아시안 리뷰에 따르면 일본의 소프트뱅크는 5G 장비에서 화웨이를 배제시키기 위해 4G 통신 인프라를 에릭슨 및 노키아 장비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이는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투입되는 작업으로 일반적인 케이스가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논란에도 화웨이는 가장 많은 5G 장비를 공급했는데, 지난 1월 24일 화웨이가 밝힌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30여건의 계약에서 25,000개의 기지국을 선적했다.

2020년부터 시작되는
SA 관련 장비 도입 때부터
본격 경쟁이 심화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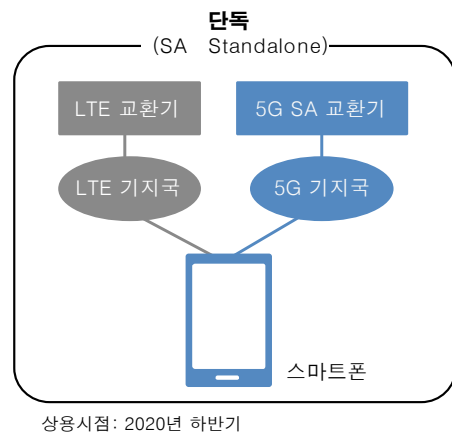
5G도 중국에는 NSA에서 SA(Stand Alone)로 변화될 것이다. SA는 4G 장비 제작사와 관계 없이 5G 단독망을 사용하는 것이다. 즉 글로벌 통신사들이 SA 방식을 장비를 도입하는 시점부터가 진정한 수주 경쟁이 펼쳐지는 것이다. 향후 미국의 대중 압박이 심화될 경우 화웨이에 우호적이었던 국가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배제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나선 국가는 미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국인 영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있다. 해당 국가들은 4G 망에서부터도 화웨이 장비를 많이 사용하지 않은 국가들이다.

[그림 12] NSA 방식 - 기존 4G 장비와 호환이 중요



자료: 언론 보도, 한국투자증권

[그림 13] SA 방식 - 5G 단독 방식



자료: 언론 보도, 한국투자증권

삼성전자도 5G 장비에
공을 기울이고 있음
2020년 점유율 20% 목표

삼성전자도 10년 만에 변화되는 통신세대를 기회 삼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높일 계획이다. 올해 연초부터 이낙연 국무총리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5G 장비 생산라인을 견학할 정도로 정부, 기업 차원에서 5G 장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삼성전자도 2020년 통신장비 점유율 20% 목표로 5G에 대한 기술 개발 및 초기 장비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5G 경쟁력은 4G에서 대비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칩셋, 단말, 장비 등 핵심 분야 일괄 공급 가능한 상황이다.

[그림 14] 연초 이낙연 총리와 5G 생산라인을 방문한 이재용 부회장



자료: 한국투자증권

**NSA 시장에서 안착후,
SA 시장을 노리는 삼성**

NSA 방식으로 5G가 도입되는 국내 시장에서 삼성전자는 큰 무리 없이 높은 점유율을 기록할 것인데, 국내 시장에서의 reference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안정적으로 통신장비를 공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버라이즌과 고정형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FWA) 관련 장비를 공급했고, 올해는 스프린트와 5G 기지국 장비(Massive MIMO)도 상용화할 예정이다. 또한 일본과도 5G 상용화를 위해 KDDI와 협력 중이며 인도에도 납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실적 개선된다면
반사이익보다는 경쟁력 자체
강화에서 기인한 것일 것**

삼성전자의 통신장비 실적은 향후 몇 년간 큰 폭의 성장을 보일 수 있다. 10년만의 투자 사이클이 도래함과 동시에 삼성전자의 자체적인 경쟁력 제고 노력의 결과물이다. 여기에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압박은 삼성전자에게는 장기적으로 보너스 value로 작용은 할 수 있다. 현재 화웨이 통신장비 매출액의 30~50%가 유럽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시장에서 화웨이의 빈자리가 생기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채울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5G 같은 최신 투자 사이클보다 규모는 크지는 않지만 아직 4G 등 과거 기술이 도입되지 못한 지역으로의 통신장비 판매가 오히려 단기에는 직접적인 반사이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규모 면에서는 크지 않을 것이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